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사진 왼쪽)·오영훈(제주시을·사진 가운데)·위성곤(서귀포시) 당선인이 선거캠프에서 가족과 지지자, 선대위 집행부 등과 함께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강희만·이상국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오영훈·위성곤 당선

제주의 선택

4·15총선 도내 3개 선거구 석권... 20년 불패 기록도 수립
'정부 견제·심판론' 내세운 야당 주자들 따돌리며 '영예'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제주지역 3개 선거구를 휩쓸었다. 민주당은 제17·18·19·20대 총선에 이어 이번 선거까지 5회 연속 싸늘이 도전에 성공했다.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원희룡 제주지사가 미래통합당에 최고위원으로 합류하면서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선전이 기대됐으나 진보진영이 16년 동안 쌓아온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개표결과(16일 오전 1시 기준) 제주시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가 48.20%를 얻어 37.73%에 그친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를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득표율)	개표율
제주시갑	197,070	116,478	1 송재호(더불어민주당) 55,582(48.20%) 2 장성철(미래통합당) 43,508(37.73%) 3 고명수(정의당) 8,258(7.16%)	90.87
제주시을	180,204	111,250	1 오영훈(더불어민주당) 60,116(54.63%) 2 부상일(미래통합당) 46,099(41.89%) 3 김은주(민중당) 2,868(2.60%)	90.51
서귀포시	100,939	65,564	1 위성곤(더불어민주당) 35,867(55.51%) 2 강경필(미래통합당) 27,963(43.27%) 3 문광삼(국가혁명배당금당) 783(1.21%)	67.21

< 2020년 4월 16일 1시 기준 >

1만2074표 차이로 이기고 여의도 첫 입성에 성공했다.

이어 정의당 고명수 후보 7.16%, 송 후보의 전략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박희수 후보 5.51%, 무소속 임호준 후보 0.39%, 현우식 후보는 0.38%를 얻었다.

제주시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54.63%로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41.89%)를 1만4017표 차이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민중당 강은주 후보 2.60%, 국가혁명배당금당 전운영 후보 0.49%, 한나라당 차주홍 후보는 0.37%를 차지했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55.51%를 얻어 43.27%를 득표한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를 7904표 차이로 제치며 재선에 성공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문광삼 후보는 1.21%를 얻는데 그쳤다.

이번 총선에서 지난 2월 바른미래

당을 탈당하고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장성철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오래전부터 총선 출마를 위해 보수진영에서 터를 닦았던 구자현 전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위원장과 김영진 전 제주자치도관광협회장을 이기고 본선에 진출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를 두고 원 보수진영에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이는 결국 보수진영의 세걸짐을 느슨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또 송 후보의 전략 공천에 불만,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희수 후보가 4·3 당시 송재호 후보의 부친인 송방식씨의 대동청년단 활동을 문제삼아 총선 이슈화를 시도했으나 '찾간속의 태풍'에 그쳤고 여론의 동조를 얻어 내는데 실패했다.

제주시을 선거구에서는 부상일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내내 오영훈 후보

의 논문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표심을 자극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도와달라고 호소한 오 후보의 질주를 차단하지 못했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강경필 후보가 지난 3년 행정부의 경제실정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행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으나 위 후보를 지지하는 탄탄한 민심의 벽을 허물지 못했다.

이번 총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 청와대 대변인으로 활약한 박정하 전 제주도 정부부지사가 강원도 원주갑에서 9년 만에 정계 복귀를 노리는 '노무현의 남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맞대결을 벌였으나 패하며 국회 진출에 실패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지난 3년 간 경제가 후퇴하고 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며 선거기간 내내 행정권 심판론을 외쳤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안정을 위해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대르기자>

도의원 재·보선 김대진·임정은 당선
대정읍선거구는 41표차로 재검표 예정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진 제주도의원 재·보선선거 서귀포시 동홍동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대진(51), 대천·중문·예래동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정은(46) 후보가 당선됐다. 대정읍선거구는 초점선 끝에 무소속 양병우(61) 후보가 당선됐다.



김대진 당선인

임정은 당선인

데, 근소한 표차로 16일 오전 1시 현재 상대후보측의 요청으로 재검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동홍동선거구 김대진 후보는 6464표(56.76%)를 얻어 미래통합당 오현승 후보 2837표(24.91%), 무소속 김도연 후보 2086표(18.31%)를 앞서며 당선됐다.

대천·중문·예래동 선거구에서는 임정은 후보가 8162표(51.46%)를 얻으며, 무소속 고대지 후보 7698표(48.53%)를 누르고 당선의 영예를 차지했다.

대정읍선거구는 개표 막판까지

초점선 끝에 양병우 후보가 5587표(50.18%)로, 경쟁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정규 후보 5546표(49.81%)를 41표차로 눌렀다. 무효투표수는 291표다. 이에 박 후보측에서 재검표를 요청했고,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진행중인 개표절차를 모두 마친 후 16일 오전 재검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도의원 재·보선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에 가려 주목받지 못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접촉의 어려움으로 후보들은 얼굴 알리기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문미숙기자>

지면 안내

- ▶ 총선과 제주현안 > 2면
- ▶ 총선 당선인 승리요인 분석 ... 3면
- ▶ 총선 읍면동별 득표현황 ... 4면
- ▶ 총선 당선인 인터뷰 ... 5면
- ▶ 도의회 재·보선 당선인 인터뷰 ... 6면
- ▶ 총선 투·개표 이모저모 ... 7면
- ▶ 총선 당선인에 바란다 ... 8면

한리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Hope. Together.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
코로나19 우리모두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주은행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주은행 전 영업점 코로나19 전용 상담창구를 이용하세요
코로나19 피해 맞춤형 금융지원

-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 소상공인 특별정책자금대출
-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당신의 제주! 당신의 은행! **제주은행**